

‘검수완박’ 판결 날선공방… “억지 면죄부” vs “한동훈 사퇴”

(輿)

(野)

법사위 현안질의

권한쟁의 현재 판결 아전인수 해석
與 “법사위원들 심의·표결권 침해”
野 “현재 결정 수용하고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아전인수’ 식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정당의 행태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재현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수완박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현재 판단 이후 국민의힘은 ‘면죄부’, ‘기울어진 운동장’ 등이라고 표현하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청구가 각하된 것을 두고 ‘한동훈 책임론’을 띄웠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의 주장에 법무부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현재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개정된 시행령 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도 현재의 시행령 상에서 적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 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국민들이 강매, 마약, 무고, 위증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호응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설명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은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위장탈당은 더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에서 현재 각하에 따른 한동훈 사퇴론이 나온다고 묻자, 한 장관은 “만약에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철승 민주당 의원은 “2009년에 미디어법 개정이 있었다. 제가 그때 미디어법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다. 난투극이 일어날 정도로 여야가 심각하게 격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가 똑같은 판단을 했다”며 “2020년 5월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손에 꼽는 어마어마한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 때도 이에 대해 현재가 같은 판단을 했다. 이번 현재 판결이 새롭지 않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해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현재 판결) 소수의견에 4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에 저도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결정이 나왔으면,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고, 그 소수의견이 지적인 점에서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최고의원회의

민생특위원장 조수진,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임명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 연기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초선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을 임명했다. 현역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것은 지난 2019년 김세연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23일 의원총회 추인 이후 김기현 대표로부터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신임 박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정책위, 국회 정부위원회 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도 시작했다.

당은 같은 날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인선 구성도 발표했다.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며,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의원

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생희망특별위원회에는 윤선웅 목포당협위원장(목포 새마을문고 이사),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 광대중 언론 칼럼니스트, 청년최고

위원에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도 함께한다.

다만, 이날 예정된 신임 당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됐다. 홍보본부장은 보수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로 알려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당은 원내대표 및 당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은 송인석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김미애·박대수·윤두현·장동혁·전봉민·홍석준 의원이 참여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수석비서관회의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부산엑스포 유치 추진 논의 관련 국무총리 주례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정책안, 당정협의 강화 국민여론 충분히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을 향해 당정협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근로시간유연화 개편안과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과 한일정상회담 성과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게 나타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과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비롯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소통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규모 당직개편 단행… 지명직 최고의원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통합·탕평·안정 중심 지도부 쇄신
정책위원회 의장에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지명직 최고의원, 정책위원회 의장,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바꾸는 등 ‘통합·탕평·안정’을 중심으로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내부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이후, 친이재명계가 요직을 차지한 당 지도부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단 내부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회의를 가진 후 당직 개편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의원에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구갑), 정책위원회 의장에 김민석 의원(3선·서울 영등포 을), 전략기획

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 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김성주 의원(재선·전북 전주 병), 디지털전략 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조선·경기 김포 을), 수석 대변인에 권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 병), 대변인에 강선우 의원(조선·서울 강서 갑)으로 개편했다. 박성준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

이날 개편으로 임선숙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문진석 전략기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장, 김남국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의겸·황명선·김현정·임오경 대변인은 당직을 내려놨다. /박태홍 기자